

신라시대 목탑의 莊嚴彫飾에 관한 연구

- 문헌을 중심으로 -

金正守

(安養科學大學 建築科)

주제어 : 목탑, 장엄조식(莊嚴彫飾), 사리(舍利)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신라불교는 고구려의 아도를 통해 처음 전래되어 신불(信佛)의 풍토가 조성되자, 신라 왕실은 일곱 절터에 사찰을 조영하였고. 몇 개의 사찰은 목탑을 건립하여 왕실추복의 기복에도 이용하였다. 그 사찰은 왕실의 원당이 되었으며 신라왕들은 원당에 행차하여 법회에 친히 참석하고 숭불하였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으로 장엄되어 건립되었던 목탑은 위상이 높았었다.

7C에 신라의 국찰은 치열한 통일전쟁으로 죽은 군사들의 명복을 비는 법회를 개최하였거나 왕실도량(道場 : 국가적인 불교의 행사)을 행하였을 때 목탑은 불교 의례의 대상이었던. 이 시기에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왕권강화와 귀족형성이 완결되었고 국가 관료제가 완성되었으므로 신라 왕실은 불사를 일으켜서 다수의 목탑을 건립하였다. 여기에 부응하여 목탑장엄도 이루어졌었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에 성전(成典)이 결성되어서 왕실사원의 영선을 담당하게 되자 영선업무에는 목탑의 장엄도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당시에 성전사원은 국왕의 원찰이었으므로 영정(眞影) 및 소상(塑像)들이 안치되었으며, 기념일(節日)마다 봉축행사(奉祀)와 국가의 불교의례가 개최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탑장엄은 중요시했음에 틀림없다. 8C중반에 신라귀족들은 왕실 못지않게 큰

불사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공양과 보시는 목탑장엄을 위한 비용으로도 쓰였다.

한편 통일신라 귀족출신의 유학생들은 중국대륙으로 유학하여 구법활동을 마친 후 대부분 신라에 귀국하여 불교교리의 발전에 힘썼으며 국왕으로부터 존경받아 승통에 추대되어 불사에도 참여했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안흥, 자장, 명랑, 진표 등이 있었고, 양자는 출신지를 모르지만 신라의 목탑장엄에 그의 역할이 컸었다.

9C에 선종의 선승들은 당나라로부터 귀국하여 산문을 개창하였고 지방세력과 연결하여 왕경에서 먼 지방에 선종사찰을 조영하였는데 소수의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의 목탑은 선승을 위한 불당기능을 갖추어 주로 불사에 공적이 컸던 선승이나 지방호족의 기복을 위한장엄조식이 이루어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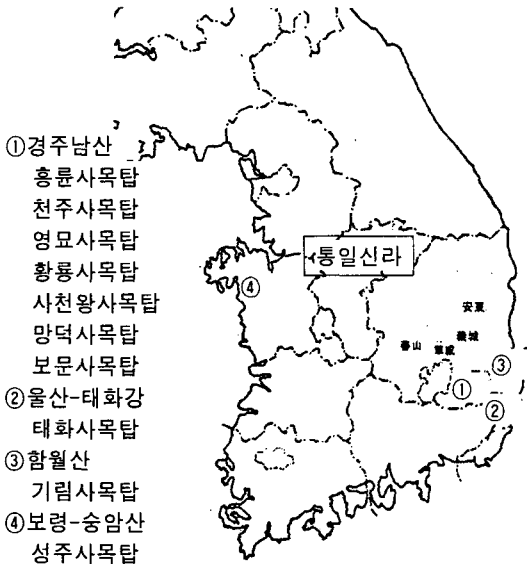
신라는 6C~9C에 걸쳐 다수의 목탑을 건립하였으나, 현재 목탑유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목탑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¹⁾

1) 김정수의1인, 「황룡사 9층목탑의 형태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5권 제102호, 1981
한정희, 「한국고대 쌍탑의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석론, 1981
한국미술사학, 「목조 탑과의 연구」, 고고미술, 162-163호, 1984
김정수, 「망덕사 13층목탑의 형태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8권 제119호, 1984
김경표, 「팔상전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김도경, 주남철, 「고려시대 환경변상도의 전각도에 관한

위와 같이 한국목탑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는바 이제는 한국목탑의 형태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건축학적으로 수장공사에 비유되는 목탑장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라고 믿는다. 삼국시대 목탑유구의 부재는 한국목탑의 연구에 영원히 걸림돌로 남을 것이다. 이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한국 목탑에 관한 연구수행에서 첫째, 문헌연구에 충실하고, 둘째, 문헌의 오류는 발굴조사 자료 및 현지답사로써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던 목탑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문헌기록이나 답지의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10기는 확실히 밝혀졌고 나머지 2기는 불 명확하다. 즉 하나는 낭산 서록(西麓)의 일명사(逸名寺) 목탑지이고, 다른 하나는 고선사지 옆의 목탑지이지만 1975년 덕동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버렸다. [그림1 참조]



[그림1]. 신라목탑의 분포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4호, 1995
이정국, 이강업, 「고려시대 목탑의 내부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10호, 1997
신영훈, 「진천보탑사와 목탑」, 조선일보사, 1999
익산시, 「익산 미륵사 복원 고증 연구 보고서」, 2001
양재영, 주남철, 「한국고대 건축의 기둥단면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3호, 2004
김정수, 「신라시대 목탑의 전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7호, 2004

신라목탑의 장엄고찰은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던 10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시기별 각 목탑장엄을 고찰하려는 의도에서 시대구분을 실시하였는데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삼국유사 권3과 권5에 「殿塔」문자로 기록된 흥륜사와 영묘사의 목탑 및 영묘사의 목탑 보다 먼저 건립되었던 천주사의 목탑들이 건립된 시기인 6C~7C초는 신라목탑 건립고대로 구분하였고, 황룡사 9층목탑, 천왕사 목탑, 망덕사 13층목탑들처럼 층수가 높은 목탑이 건립된 7C 중~8C는 신라목탑 건립중세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적기에 「三層 舍利閣」이라고 기록된 기림사 목탑 및 「五層重閣」이라고 기록된 성주사 목탑이 건립되었던 9C는 신라목탑 건립근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신라목탑의 시대구분은 김동욱 선학자가 한국 건축의 역사책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한 소위 삼분법을 적용한 것이다.²⁾

신라목탑의 장엄고찰은 문헌조사에 충실하고 목탑지의 발굴조사 사항과 출토된 유물을 참조하였으며 목탑지의 답사도 실시하여 행하였다. 또한 신라석탑의 탑신에 조각된 부조상(신장상, 문비, 비천, 난간 등)을 보완자료로써 활용하였다.

2. 목탑장엄의 정의

신라의 목탑장엄은 건축학적으로 목탑가구의 수장공사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불교의 교리적인 해석은 목탑 안에 봉안되었던 사리수호와 공양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신라의 목탑장엄은 사리사상에 의한 사리탑을 숭배하였던 신도들의 숭불의식을 위하여 포교적인 면이 첫째로 강조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목탑장엄의 객관적인 고찰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불교에서 장엄의 근본적인 뜻은 탑 안에 봉안된 사리수호 내지 공양을 위한 것으로서 범어로 Vyuhā라 번역하였다. 법화경은 이것을 엄식(嚴飾)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사의 분야에서 장엄은 불탑, 불상, 보살 등을 장식(嚴飾)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고에서 목탑장엄은 조탑술으로써 불탑의 기단, 탑신, 상륜 등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초층 탑실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8, 12쪽

안에 불상(佛像)을 안치하며, 각종 물상(物像)을 부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밖에 탑신 자체를 조각하고 채색하거나 불화로써 꾸미는 것 등을 포함하는 장엄조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장엄을 넓게 해석하면, 신라의 목탑장엄은 다음과 같이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탑신 안에 기본적으로 진신사리나 승사리 및 법사리를 봉안하는 장엄이다. 둘째는 탑신 안에 삼천불상, 소불상, 불비석, 사방불, 감실, 99소탑 혹은 77소탑 등을 안치하는 장엄이다. 셋째는 목탑 자체의 각 부분을 즉, 탑신, 지붕, 난간, 상륜, 문비, 창, 기단 등을 조식하는 장엄이다. 넷째는 목탑의 자체를 채색, 회칠, 단청, 벽화 등으로 단장하는 장엄이다. 다섯째는 목탑의 자체에 부가적으로 호법신상을 부조하거나 풍탁을 매다는 장엄이다. 제3장에서는 신라목탑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장엄을 사료를 통해서 고찰할 것이다.

3. 신라목탑의 장엄고찰

신라목탑의 장엄은 6C ~ 9C에 걸쳐서 장기간 존재할 때까지 사찰에서 거행되었던 각종 불교의례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라목탑의 장엄고찰을 행하는 기간은 목탑의 건립시기에서 신라말까지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라목탑의 10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목탑에 관한 장엄을 분석하고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6C ~ 7C 초 신라목탑의 장엄

신라불교의 초전은 선산지방에서 이루어져서 점차 왕경으로 전파되어 소지왕대(479년 ~ 500년)는 왕실에까지 전해진 것 같다. 6C초반에 법흥왕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여 전제군주의 틀을 마련하면서 불교도 허락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신라인들은 합법적으로 불교를 믿게 되었던 것이다.³⁾

(1) 홍륜사 목탑의 장엄

법흥왕은 22년(535년)에 홍륜사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중단되었다. 다음대의 진흥왕은 5년(544

년)에 홍륜사의 공역을 다시 시작하여 창건했다. 최초의 당탑사찰이 완성되자 국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대왕홍륜사」라는 현판을 하사하였다. 그래서 편액은 목탑의 전면에도 감장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절은 만년에 국왕이 주지가 되었던 원찰이 되었다.

홍륜사 목탑의 건립공사는 천경림에서 목재를 벌채하여 사용하였고 층계와 주춧돌 및 석감(石龕)도 모두 갖추었다. 그 결과 신라 최초로 세워졌던 홍륜사의 목탑은 삼국유사 권3에 「...左經樓, 殿塔及 草樹土石 階發異香」라는 기사 및 삼국유사 권5에 「.....競遶 興輪寺之 殿塔爲福會」라는 기사가 보여 주듯이 「殿塔」이라는 문자로 기록이 전한다. 이 문자의 사전적인 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망월불교대사전」은 「불상과 사리장엄을 봉안하고, 불화로 장식하여, 초층 탑실 안은 공불상(供奉佛像)의 의식을 거행하는 불전형 목탑을 말하며 대승불교가 융성했던 북위의 영향을 받아 조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낙양가람기 범운사조의 「西域烏場國胡沙門僧摩羅所立也.....西域所齋舍利骨及佛牙經像皆在此寺」에 의하면 서역 오장국의 사문 담바라가 265년에 서역에서 가지고 왔던 사리, 불아, 경전, 불상 등을 범운사에 안치했다고 하므로 본 연구자도 첫째 해석에 같은 의견이다.⁴⁾

둘째, 한국 건축사전은 불전이 북방 불교의 주존을 모시는 건물이라고 설명하며 건축학적으로 볼 때 「높고 크며 웅장하거나 장엄하게 꾸민 집」을 뜻하는 대웅전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였다.⁵⁾

셋째, 신대현은 불교적인 면에서 殿은 堂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殿堂, 殿宇 등으로 부르는데 「불상을 봉안하고 불경을 강설하며 의식을 거행하는 수행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상한 건축물」로 정의하였다.⁶⁾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殿塔」에서 전은 탑을 수식하는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벽돌탑의 전탑과 발음이 같아 탑전이라 부

3) 「삼국유사」 권3 흥법 제3 아도기라, 원종흥법 염축멸신. 「삼국사기」 권4 진흥왕 5년

4) 冢本善隆 等 編, 「望月佛敎大辭典」 제4권, 世界聖典刊行協會, 1936, 3840쪽 ~ 3841쪽

5)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한국건축대계 IV)」, 보성문화사, 1985, 13쪽

6)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11, 26. 244쪽 ~ 247쪽

르기도 한다. 그런데 송나라 이계가 제시했던 건축유형을 기록한 중국 영조법식의 총석상(總釋上)은 「전은 신불을 모셨고 높으며 웅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가 최초로 건립했던 흥륜사의 목탑은 조탑의례가 정해지기 전이었으므로 기존의 궁궐 건축물을 그대로 용도만 바꾸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 최초의 절도 관아건축을 절로 사용한 연유 때문에 「寺」는 후에 절의 명칭이 되어버린 역사적인 사실과 비교된다. 그래서 흥륜사의 목탑은 소조상 안치, 채색벽화 장식, 사리장엄, 출입문비, 편액 등을 갖추었음은 신라가 공식적인 조탑의례를 정립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준다. 이러한 조탑장엄은 7C초에 건립되었던 영묘사의 목탑장엄까지 계승되었을 것이다.

사리사상에 의하여 흥륜사목탑에 장엄용으로 필요했던 사리봉송은 목탑의 완성시기(544년)보다 6년 전인, 진흥왕 3년(538년)에 중국 양나라 사신인 심호(沈湖)가 진신사리를 봉송하였다. 이 사리봉송은 법흥왕 22년(535년)에 시작했던 흥륜사의 초기공사보다 늦어서 목탑의 건립공사가 중단되었던 원인이었을 지도 모른다. 흥륜사의 목탑은 창건시에 「石龕」을 제작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고려하면 사리장엄은 이루어졌으나 어떤 방법으로 봉안하였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리장엄의 방식은 추정하기가 어렵다.⁷⁾

신라절터의 발굴결과는 흥륜사 목탑지, 천주사 목탑지, 영묘사 목탑지 등에서 현재까지 심초석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표1 참조]

다음과 같이 삼국시대의 절터 발굴결과의 발표사항을 참고하면, 흥륜사 목탑은 굴림주를 사용했고, 난간을 둘렀고 처마끝에는 풍탁을 매달아 장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의 8각 목탑지는 기초시설만 드러났고 아직까지 심초석이 발견된 예가 없다. 학자들은 탑실 내에 불상을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고구려의 금강사지는 팔각기단의 둘레에 동자주를 세우고 돌난간을 둘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7) 사리장엄이란, 사리를 직접 봉안하는 다중구조의 사리용기와 법사리인 경전 및 다라니를 납입한 작은탑, 그리고 불상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강우방, 열화당, 1993, 5, 34쪽, 35쪽에서 인용하였다.

[표1]. 신라 절터의 심초석 출토

위치		목탑지	심초석출토	시대
경주시	사정동	흥륜사 목탑지	미출토	고신라
경주시	안압지	천주사 목탑지	미출토	고신라
경주시	성건동	영묘사 목탑지	미출토	고신라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 목탑지	지표식 심초석	고신라
울산시	학성동	태화사 목탑지	12지신장 부도	고신라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사 목탑지	지표식 방형 심초석	통일신라
경주시	배반동	망덕사 목탑지	지표식 8각 심초석	통일신라

(출전: 옛 절터, 대원사, 1989, 117쪽
절터 일람표에서 인용)

셋째, 고구려의 상오리사지는 금동제 풍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목탑의 처마끝에 매달았던 것이다.

넷째, 백제 군수리사지의 목탑지와 금강사지의 목탑지는 지표에서 2m ~ 3m 깊이에 심초를 두었고 그 심초 앞면에 지진구라는 납석제의 불상이 놓여 있었다.

다섯째, 부여 능사에서 목탑용 굴림주의 밑뿌리와 우체통 모양의 석재 사리감이 출토되었다. 흥륜사의 목탑장엄은 삼국유사 권5 「金現感虎條」에 기록된 탑돌이 관련기사에서 추정할 수 있다.⁸⁾ 당시 신라인들의 탑돌이는 흥륜사목탑에 장엄되었던 진신사리가 금당의 불상보다 더욱 중요하였음을 증명해주며 그들의 목탑승배는 현재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연화문양이 새겨진 배례석이 증명해 준다.⁹⁾

8) 「삼국유사」 권5 金現感虎條, “新羅俗每堂仲春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競遠輿輪寺之殿塔爲福會”
9) 예경(禮敬)을 위한 종교행사에 사용되는 판석이며, 일본 법통사 금당 및 오중탑의 전면에는 지상에 예배를 위한 坐石(예배석, 혹은 배석)을 설치하고 있다. 「望月信享」, 불교사전, 4947쪽 상.

홍륜사목탑의 탑신장엄은 「7C 말엽에 김양도는 홍륜사의 미륵상 및 좌.우 보살을 소상으로 조성해 봉안하고 금당에 금색벽화를 그렸다」고 전하는 밀본법사의 이야기 중에서 금색벽화가 증명해 준다.¹⁰⁾ 그리고 불사장엄에 필요한 재정은 귀족들의 보시로 이루어졌었다.¹¹⁾

홍륜사는 1978년에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있었고, 1981년도에도 조사가 있었다. 당시 절터에서 출토된 화문전(꽃벽돌), 방전(바닥재)은 일부를 목탑의 기단 위에 깔아 장식하였음을 증명해 준다.

(2) 천주사의 목탑장엄

진평왕은 11년(589년)에 제석천신¹²⁾을 호국신으로 모시기 위하여 궁중에 천주사를 짓고 목탑을 세워서 분수승(焚修僧)을 상주시켰다. 이 사찰은 제석신을 모신 별도의 원당(願堂)으로서 내제석궁, 내불당, 내전, 내원 등으로 불렀던 국찰이었다. 당시 국찰은 왕실추복을 위한 불사나 제석도량을 배설할 때 반드시 조상이나 신장(제석신, 인왕상, 팔부중, 사천왕상, 12지신상등) 탕화를 모셔놓고 의식을 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천주사 목탑도 그와 같은 장엄이 행하여 졌을 것이다. 삼국유사 권1은 진평왕이 내제석궁에 행차했을 때 목탑이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불우조와 동경잡기에 「雁鴨池在天柱寺北」이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 단종 때 사람이었던 김시습의 기행시(매월당집)에 천주사 목탑을 관람했다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이 목탑은 신라왕의 내불당과 함께 조선시대(15C)까지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¹³⁾

천주사의 위치는 월성과 안압지 중간쯤인 서북쪽임을 알 수 있지만 절터는 폐허가 심하다. 그러나 천주사의 목탑장엄은 삼국유사 권5 월명도솔가조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 경덕왕대의 「내원의탑」에 관한 「동자가 천주사의 내원탑 중에 들어가 숨었던 초층 탑 안은 남쪽 벽에 차, 염주, 미륵

상, 벽화 등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목탑의 장엄을 밝혀준다.

천주사지의 근처에 문무왕이 조성했던 안압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연못의 발굴조사(1975. 3 ~ 1976. 12말까지)에서 15,000여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것들의 제작시기는 최고 7C까지로 상향 발표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안압지 근처에 동궁(태자궁)과 내불당(천주사)이 존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열한 유물들 중에서 4)항의 유물은 불교 미술품이므로 내불당과 친연성이 있다고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⁴⁾

- 1) 건축부재의 파편(8C ~ 10C)인 난간, 부연, 첨차, 주두, 소로, 부연, 서까래, 평고대, 나무귀틀, 불감등이 출토되었다.
- 2) 연암, 난간동자기둥, 난간살, 간간살대, 소로간벽 등이 출토되었다.
- 3) 주칠(朱漆)이 남아 있는 서까래가 출토되었다.
- 4) 옷칠한 목재불감, 금동판 삼존상 2점, 보살좌상 8점(7C 후반 ~ 8C), 금동여래입상 5점(8C ~ 9C), 금동비로자나불(10C), 광배장엄구인 금동판의 화불, 비천, 천개, 신장, 보주장식 200점, 사리운반상 등이 수백점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불상류가 17점 및 광배편의 장식품 250여점이 출토된 것처럼 다종다양한 불교 미술품들은 7C초에서 10C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유물이므로 당시의 불사장엄을 파악함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
- 5) 금동봉황장식, 금동용두, 금동 귀면장식 문고리, 금동투조 문고리, 금동 연봉형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 6) 토기 단청용기(7C ~ 9C)와 사용하고 남은 안료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삼국사기 권33 잡지 제2옥사조에 따르면 왕궁과 불사에서만 5색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① 첨차(8C~10C)



10) 「삼국유사」 권3 미륵선화, 권5 밀본취사(密本摧邪)
 11) 「삼국유사」 권5 의 기록은 홍륜사의 육륜회(六輪會)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부자 복안이 배 50필을 시주하였다고 전한다.
 12) 제석천(Indra)은 고대불교 초기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향마의 능력이 있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제석도량을 설치하였다. 제석천의 형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는 각종 영락을 걸치고 금강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불전의 벽에 그리거나 부조하였다.
 13) 김시습(1435년 ~ 1493년)의 「四遊錄」 권12

14) 「안압지」,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1980, 153쪽~159쪽

② 난간살대 (8C~1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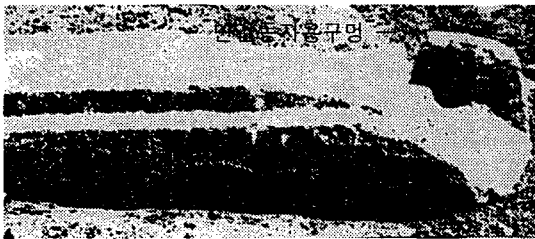
③ 연합 (8C~10C)

[그림2]. 안압지 출토 건축부재

(출전: 안압지관,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2002, 143쪽, 144쪽, 145쪽)

위와 같이 출토유물은 귀납적으로 해석하면 약 15C까지 안압지 근처에 서 있었던 천주사 목탑의 장엄을 추정하는 사료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난간부재는 범화경 권11 견보탑몸이 설하는 보탑의 난간과 관련되며 삼국시대에 목탑의 난간과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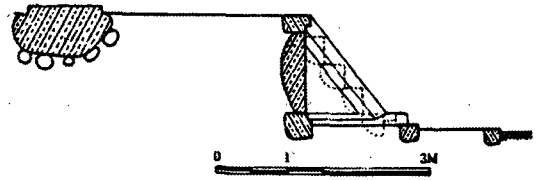
- 1) 황룡사 목탑의 기단 지대석의 난간동자를 세운 구멍 [그림3 참조]
- 2)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에 조각된 난간
- 3) 불국사 다보탑의 석재 난간
- 4) 부여 출토 동탑편의 난간조각
- 5) 고구려 금강사지의 팔각기단 돌레에 동자주를 세우고 돌난간을 둘러던 흔적
- 6) 고려 관경 변상도의 전각난간



① 목탑지 남면 동계단석
난간동자용구멍



② 목탑지 서북우 기단 지대석 (후면)



③ 목탑지 기단 추정 복원도

[그림3]. 황룡사목탑 기단지대석의 난간동자용 구멍
(출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유적발굴 조사보고서 1, 1984, 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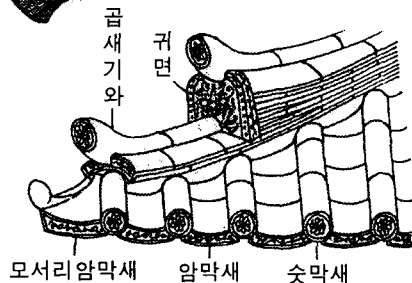
(3) 영묘사 목탑의 장엄

선덕여왕은 635년 영묘사를 사미천(沙川尾)에 조영하면서 목탑도 세웠고 국찰로 삼았다. 이 불사를 위하여 왕경인들은 흙을 날라 양지스님이 조성했던 소조불상(장육상, 사천왕상, 삼천불)과 전탑기와(殿塔瓦)를 제작할 때 민공으로 도왔다.¹⁵⁾

양지가 영묘사의 전탑조영을 위한 기와제작에도 관여하였다는 기록은 절터에서 출토된 얼굴무늬 숫막새와 일치한다. [그림4 참조] 그래서 신라시대 추녀마루의 추정복원도를 참고하면 숫막새가 사용되었던 영묘사 목탑의 추녀마루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5 참조]



[그림4]. 영묘사 출토
얼굴무늬 숫막새
(출전: 옛 기와, 대원사, 1992,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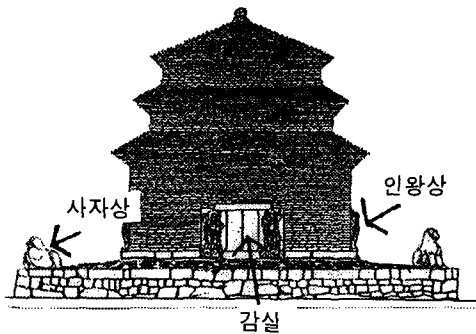
모서리암막새 암막새 숫막새

[그림5]. 신라시대 추녀마루 추정복원도
(출전: 신라의 기와, 동산문화사, 363쪽)

15) 「삼국유사」 권4의 석양지조(釋良志條), “靈廟丈六三尊天王像并殿塔之瓦, 並造三千餘佛安基塔置於寺中”

영묘사의 목탑은 삼천불을 조성하여 안치하였다는 문헌기록 처럼 초층 탑실 안에 그것들을 안치하려면 단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불단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또한 「殿宇三層」라는 삼국유사의 기록문자에 의하여 3층전탑형태가 증명해 준다.¹⁶⁾ 그리고 이 목탑의 탑신 장엄은 영묘사보다 1년전(634년)에 건립했던 분황사 모전석탑의 석감실 좌우에 부조했던 인왕상이 보여주듯이 호법신상이 장엄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6 참조]



① 분황사 모전 석탑



② 감실 좌·우 인왕상

[그림6]. 분황사 모전석탑의 인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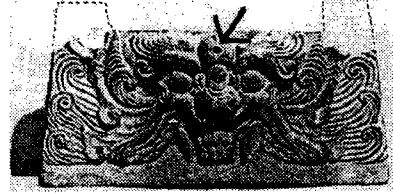
(출전: 분황사석탑 실측조사보고서, 1992, 74쪽)

영묘사터는 발굴조사에서 사냥무늬 벽전돌(33cm×14cm×5.3cm)과 귀면전이 출토되었다.¹⁷⁾ 이 두 특수형상의 출토전돌은 선덕왕의 원찰이었던 영묘사의 목탑 안에 감장(嵌裝)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7 참조]

16) 「삼국사기」 권10, 선덕 여왕 4년조 “靈廟寺成 木造塔左殿 殿宇三層”

17) 귀면전은 양 상단에 돌출부가 있으며 현재까지 영묘사 이외의 절터에서는 단 1점도 출토된 예가 없다. 한국의 전탑연구, 박홍국, 학연문화사, 1998, 11, 205쪽에서 인용

못구멍



[그림7]. 경주 흥륜사지 출토 귀면전

(출전: 한국의 전탑연구, 204쪽)

영묘사는 동경잡기 권2 불우조에 「建殿宇三層. 體制殊異」라는 구절과 삼국유사의 전탑(殿塔)이라는 문자, 즉 이 두 자료를 서로 결부시키면 영묘사의 목탑형태는 장엄이 특별하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¹⁸⁾

김시습(1435년 ~ 1493년)은 15C말(1490년대)에 그의 문집인 「梅月堂詩四遊錄」에 「登靈廟寺浮圖唯一木浮圖存」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다. 이 시집은 영묘사의 목탑을 「浮圖」라 하였는데, 이것은 북위시대에 영녕사 목탑을 「浮圖」라고 불렀던 명칭과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 시집의 「登靈廟寺浮圖」라는 구절은 영묘사의 목탑이 초층 내부에서 제일 위층까지 사람이 오를 수 있었던 구조였음을 증명해주므로, 목탑의 외부는 난간을 갖추었을 것이다.

영묘사는 후대 영묘사 성전(成典)이 결성되어 목탑의 관리보수 및 장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목탑은 신라의 목탑으로서 가장 늦게 조선시대까지 존재하였던 것이다.

3-2. 7C중 ~ 8C 신라목탑의 장엄

신라중대의 불교는 법상종이 7C ~ 8C중반까지 융성했고, 또한 신인종은 7C후반 ~ 8C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융성하였다. 이어서 신라는 화엄종의 융성과 선종의 수용이 있었다. 이 시기에 신라는 국왕을 중심으로 호국불교가 전개되었다. 그래서 왕실은 황룡사 9층목탑, 사천왕사 목탑, 망덕사 13층목탑 등을 세웠고 국왕은 인왕법회가 있을 때마다 호국사찰을 방문하였다. 당시 신라는 50여개의 사찰을 세울 만큼 불사가 활발하였다.

8C중엽 이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귀족들에게 조탑공덕의 사상을 크게 일으켜 장엄을 주도하였는데, 그 영향으로써 8C초에 건립되었던

18) 「동경잡기」 권2 불우조에 “靈廟寺.....善德王 建殿宇三層. 體制殊異”

황복사탑 및 9C에 중수했던 황룡사 9층목탑은 무구정경을 탑 안에 봉납하고 다시 99개의 소탑을 봉납하였다. 이러한 사리탑신앙의 장엄은 8C ~ 10C까지 신라 불탑에 크게 유행했었다.

(1) 황룡사 9층 목탑의 장엄고찰

선덕여왕은 643년에 황룡사 2차 가람에 9층목탑을 세우기 위하여 적국인 백제로부터 아버지(浮圖匠)를 초청하여 자장이 당나라로부터 가지고 왔던 진신사리를 심초석의 초구(礎臼 : 석함의 사리공)에 봉안하여 높이 225자인 9층목탑을 세웠다. 바로 이것은 신라에 새로운 양식의 조탑술을 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더러 당시에 신라는 높은 형식(高樓形)의 목탑을 만든 경험이 없었음을 증명해 준다. 삼국유사 권4 자장정율조에 자장이 「불경과 불상을 엄격히 장식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니 호법이 이에 성행하였다.」라는 기록은 목탑장엄은 과실이 없도록 엄격하게 행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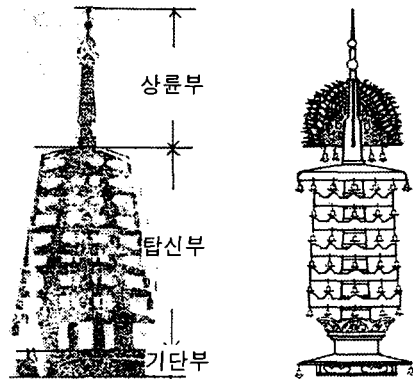
그러나 9층목탑은 초건 이후에 여러 차례의 낙뢰피해 때문에 경문왕 11년(871년)에 옛 구조를 새 구조로하여 탑 안에 소탑 99구를 봉안하고, 또한 사리일구를 철반에 첨가 안치하면서도 진신사리는 원래대로 봉안하여, 동왕 12년(872년) 7월에 찰주기록(刹柱記)을 남기고 중수 공사를 마쳤다. 이 공사의 사리장엄은 법식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이때 목탑의 높이는 215자 6치였으며 초건시의 높이 225자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아 목탑의 가구치수는 덜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 목탑은 1238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불타 버렸으므로 현재 목탑터에 남아 있는 초석만으로는 목탑의 규모를 추정할 뿐이다. 그래서 양현지의 낙양가람기²⁰⁾(5C말 ~ 6C초)중에서 북위시대 영녕사 9층목탑의 장엄에 관한 내용과 같이 요약하여 비교해 본 결과 황룡사 9층목탑의 장엄을 추정할 수 있었다.

- 1) 영녕사 9층부도는 나무로 만들어 졌다.(九層浮圖大木塔)
- 2) 탑위는 금찰(十丈)이 있었고 상륜이 삼십중이었다.(塔頂在刹柱上串入相輪三十重)
- 3) 금찰 위는 금보병이 있었다.(刹上有金寶瓶 容二

十五石)

- 4) 금보병 아래는 주위에 금방울(金鐸)을 달았던 30층으로 된 금반이 있었다.(寶瓶下有承露金盤三十重周匝皆垂金鐸)
- 5) 4개의 쇠사슬은 금찰에서 탑의 네 모서리 쪽으로 당겨지도록 하였다.(夏有鐵鑱四道引刹向浮圖四角)
- 6) 쇠사슬은 금방울을 달았다.(鑱上亦有金鐸)
- 7) 9층탑의 각 모서리는 금방울을 달았다.(浮圖有九級角角皆金鐸)
- 8) 4면의 탑신은 각 면마다 3개의 문과 6개의 창이 있었다.(浮圖有四面 面有三戶六窗)
- 9) 문은 옷칠을 하였다.(戶皆朱漆)
- 10) 문짝은 다섯줄의 금못이 박혔다.(扉上有五行金釘)
- 11) 문짝은 금 문고리가 있었다.(夏有金環鋪首)

위와 같은 목탑장엄의 자료에 의하여 황룡사 9층목탑의 장엄도 금도금한 상륜, 금방울, 쇠사슬, 문옷칠, 문짝의 금못, 금문고리 등을 갖추어 상세하였음이 추정된다. 이 목탑의 철제상륜은 높이가 42자이므로 탑신과의 높이 비는 약 4 : 1이었음이 계산된다. 여기서 당시의 상륜 높이는 목탑의 높이에 비례하여 크게하므로써 착시현상을 고려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상륜의 형태는 탑골마애탑의 탁본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라시대 양지가 만든 탑전에 새겨진 상륜이나 백옥사의 부조석주에 조각된 상륜도상 등을 참조하여 상륜 추정도를 작성하였다. 물론 이 추정도는 목탑의 높이에 따라서 보륜의 숫자만 증가시키면 어떠한 목탑에도 비례가 맞는다. [그림8 참조]



① 탑골마애탑의 상륜 ②신라 목탑의 상륜추정도

[그림8]. 신라시대 목탑의 상륜

(출전: 경주 남산의 탑골, 열화당, 1991, 31쪽)

19) 「삼국유사」 권3, “鐵盤自上高 四十二尺 已下一百八十三尺(一步六尺)”

20) 양현지 지음, 서윤희 옮김 「낙양가람기」, 눌와, 2001, 48쪽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솔거조의 설화는 황룡사 벽의 노송도를 솔거가 그렸는데 새가 날아들었다고 하므로 9C에 황룡사 9층목탑은 벽화 및 단청으로 장엄되었음을 증명해 준다.²¹⁾

이와 같은 목탑장엄을 갖추었던 황룡사는 백좌 법회, 보살계강연, 화엄계강연, 연등회 등의 불교 의례가 개최되었고 특히 고구려의 승 혜량이 귀순하여 전래시킨 팔관회는 황룡사에서 최초로 열렸었다.²²⁾

최근 여러 차례 황룡사터의 발굴조사에서 목탑터(7칸×7칸)의 탑구(塔區)는 긴 장대석으로 삼중기단의 구획을 만들었음이 밝혀졌고 남쪽에 세 군데에 돌계단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영녕사 9층목탑의 각 면에 있었던 3개의 문처럼, 황룡사 9층목탑의 초층탑신은 남면에 3개의 출입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룡사터에서 출토된 불상무늬 전돌과 인물상 전돌, 보상화무늬 전돌들은 목탑의 장식목적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2) 태화사 목탑의 장엄

신라는 자장법사가 선덕왕 5년(636년)에 당나라에 유학하고, 동왕 17년 신라에 귀국할 때 봉송한 사리일분을 봉안하여 아곡현 남쪽(울산)에 태화사(太和寺) 목탑을 세웠었다. 현재 목탑터의 위치는 폐허가 심하지만 태화사터로 추정되는 태화동 반탕골의 산비탈에 묻혀있었던 보주형 탑신은 1962년에 발굴되어서, 현재 울산 학성동 공원에 옮겨져 있다. 이 보주형 탑신(부도)은 각각 다른 모양의 12지 입상을 돌려 조각하였다.

현장 답사에서 사리석감실(29cm×28cm×27cm)은 바닥으로부터 약 60cm위에 뚫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형태는 우체통처럼 생긴 부여능사에서 출토되었던 사리석감실과 비슷하였다.²³⁾

그런데 사리감은 위치가 높기 때문에 빗물의 유입을 막으려면 마땅히 안치해야할 위치는 탑실 내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추측컨대 이것은 원래 태화사 목탑의 내부에 설치했던 진신사리 석감으로 추정되므로 원형의 고증이 필요하다.

[그림9 참조]



[그림9]. 태화사터의 12지 신상 보주형 탑신

이 보주형 탑신에 조각된 12지 신상은 불탑의 진신사리를 수호하는 호법신장이므로 태화사 목탑의 장엄사상과 관련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조상은 약 7C경부터 신라석탑에 장엄조식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유행했었다.

(3) 사천왕사 목탑의 장엄

사천왕사 목탑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후 8년째 되던 해, 즉 문무왕 19년(679년)에 명랑법사가 낭산 신유립에 「금광명경」의 사천왕사상을 근거로 창건했던 절에 세웠던 최초의 쌍목탑이다. 그런데 목탑지(3칸×3칸)에서 679년에 양지스님이 제작했던 사천왕상전돌(祿釉塑造神將像傳)은 출토된 후 1923년에 파편들이 원형(규격 : 세로80cm×가로70cm×두께8cm)으로 복원되어 6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10 참조]

이것은 원래 초층탑신의 아래에 쌓아졌던 것이라고 하므로 사천왕사의 목탑장엄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유물이다.²⁴⁾



[그림10].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사천왕상전돌 (출전: 옛전돌, 대원사, 1999, 83쪽)

21) 솔거는 착화자(着畫者)라고 불렸으며,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에서 솔거를 승려출신의 화공으로 적고 있다 그가 그린 황룡사 벽면의 노송도를 절의 중이 새롭게 단청을 보수하자(歲久暗色寺僧以丹青補之). 그 다음부터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또 경주 분황사의 관음보살과 진주 단속사의 유마상이 모두 그의 필적이라고 한다.

22) 경문왕은 6년(886년) 정월 15일에 황룡사에 행차하여 연등을 보고 백관에 연회를 베풀었으며, 진성왕은 4년(890년) 정월 15일에 황룡사에 행차하여 연등을 관람하였다.

23) 석감은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기의 외함인데, 통일신라시대 목탑은 찰주를 받치는 심초석이 석감의 역할을 한다.

24) 「삼국유사」 권4 양지사석조, “釋良志 未詳祖考 鄉邑--- 四天王塔下八部神將”

사천왕사 목탑은 초층 탑신의 벽 아래에 사천왕상전들을 감장하였지만, 그 벽체마감은 북위시대의 사찰벽이 흰 벽이었다는 낙양가람기의 기록처럼 회벽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삼국사기 권33 잡지 제2 옥사조의 가사제한(家舍制限)에서 석회단장을 할 수 있었고 벽화를 그릴 수 있었던 성골주택의 장식과 일치한다. 신라의 건축 중에서 위계가 높았던 목탑은 가사제한이 당연히 허용되어서 벽체가 회벽마감이었을 것이며 진골이하의 가사제한중에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²⁵⁾

- 1) 不覆唐瓦
- 2) 不施飛簷重楸栱牙懸魚
- 3) 不飾以金銀鑰石五彩
- 4) 不塗石灰
- 5) 不置三重階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녹유 마름모형(千鳥形)의 전들은 특수한 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탑 내부의 내진에 흙으로 만들었던 불단을 장식하여 사방불을 모셨음을 고증해 준다. 또한 출토된 보상화당초 무늬의 전들은 목탑의 바닥에 깔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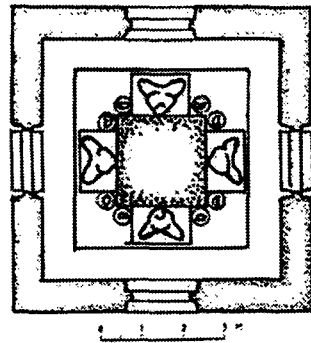
사천왕사의 목탑은 사천왕사상에 의하여 건립되었으므로 초층탑실 안에 사방불의 안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절터에서 출토되어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부가 잘린 좌석불이 증명해 준다.²⁶⁾ [그림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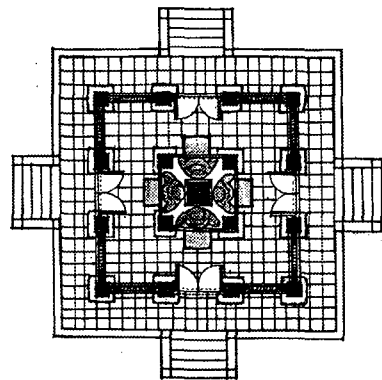
[그림11]. 경주남산 사천왕사의 파석불

(출전: 신라의 폐사 I, 한국불교연구원저, 일지사, 1974, 31쪽)

탑실 안에 사방불의 배치는 양지가 영묘사와 사천왕사의 사천왕상을 만들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544년에 건립되었던 중국 신통사 사문탑의 탑실 안에 사면출입문을 바라보고 배치된 4구의 사방불[그림12 참조] 및 절터에서 출토되었던 좌석불을 범본삼아 작도한 사천왕사 목탑안의 사방불을 배치한 추정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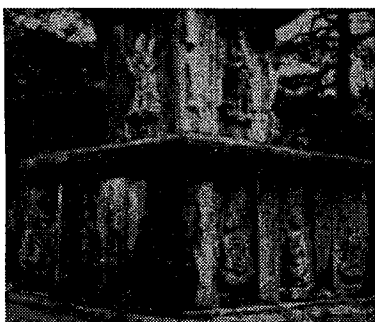
[그림12]. 중국 신통사 사문탑의 사방불(산동 역성현) (출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7호, 2004, 133쪽)



[그림13]. 사천왕사의 목탑평면 추정도

사천왕사 목탑건립의 기본사상이 되었던 사천왕신앙은 6C말경 신라에 전래되어 호국경전으로 알려진 금강명경의 「사천왕호국품」 공덕이 전해지면서 사천왕사의 창건 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영향으로서 사천왕상이 조각되었던 대표적인 신라 석탑은 예천 동본동 석탑,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 원원사지 3층석탑(1층기단은 12지 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염거화상탑 등이 남아 있다. [그림14 참조]

25) 김부식, 「삼국사기」 권33, 잡지 제2 옥사조(屋舍條).
 26) 「신라의 폐사 I」, 한국불교연구원저, 일지사, 1974, 33쪽



[그림 14]. 원원사지 3층석탑의 부조상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녹유 마름모형(千鳥形)의 전돌은 특수한 장소나 불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탑내부의 불단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 보상화당초 무늬의 전돌은 목탑 바닥에 깔았을 것이다. 신라정부는 이 절의 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사천왕사성전을 설치하였다.²⁷⁾

(4) 망덕사 목탑의 장엄

망덕사는 당나라 사신에게 황수(皇壽)를 축원하는 사찰로 보이기 위하여 급히 낭산 서쪽에 사천왕사대신 절을 지었을 때²⁸⁾ 13층목탑을 건립하느라 사천왕사의 준공보다 7년 후인 신문왕 5년(685년) 4월에 낙성되었던 것이다.

현재 목탑지(3칸×3칸)는 초석들이 남아 있는데, 작은 평면(3칸×3칸)위에 13층목탑을 세웠다는 것은 종전의 조탑전통에서 벗어난 이형탑(밀침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목탑의 평면은 보기 드물게 중앙에 8각 심초석이 놓여 있으며, 이것은 내진에 8각 불대좌를 설치한 3칸×3칸 규모인 장항리사지의 단실형 금당평면과 매우 유사하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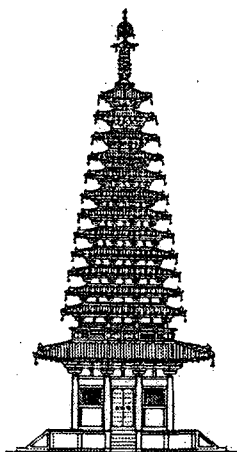
이 목탑은 단실형 평면의 내진에 정사각형 토단을 만들고 중심에 찰주를 세웠을 것이며 또한 절터에서 출토된 보상화문 전돌과 무문 전돌을 바닥에 깔아 장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천왕사의 목탑과 망덕사의 목탑은 3칸×3칸 규모의 평면이므로 실내가 너무 협소하여 초층탑신의 어칸에 문짝을 채색장식하여 달아도 내부에서 배례(拜禮)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 법륜사 금당의 문이 안으

로 여닫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불은 밖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³⁰⁾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통일신라기에 건립했던 3칸 크기 평면의 목탑은 밖에서 행하는 배례나 탑돌이 때에는 목탑의 벽화나 채색 및 단청 등의 장엄은 외부승배 위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가정은 삼국사기 권8의 「신문왕은 2년 6월에 국학을 세워서 화공들의 소속관서에 채전감(彩典監) 1명을 두었다」라는 기사가 증명해 준다. 한편 정혜사와 망덕사는 건립의 연유가 중국과 관련된 점이 서로 일치함을 참고하여 경주 옥산서원 옆에 남아있는 정혜사지 13층석탑³¹⁾ [그림 15 참조]을 닮은 법계13층탑과 같은 관념적인 장엄을 기본으로 목탑의 형태는 1984년에 학술지에 발표하였던 추정복원도 [그림 16 참조]가 참조된다.



[그림 15]. 정혜사지의 13층석탑



[그림 16]. 망덕사 13층목탑의 추정도

27) 성전(成典)은 통일신라 이후에 사원의 영선을 담당하는 국가의 관부(官府)로서 장관은 국왕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 임명되었고, 성전 사원의 승관은 재능 있는 스님이 선출되었다.

28) 「삼국유사」, 진신수공조 “基國爲唐立此寺。故以爲名。兩塔相對高十三層。忽震動開合。”

29) 「한국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한국미술사 교육연구회 1998, 80쪽

30) 「한국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한국미술사 교육연구회 1998, 66쪽, 67쪽

31) 동경통지에 따르면 신라 37대 선덕왕 원년(780년)에 당나라의 첨의사 백우경이 귀화하여 살았던 절인대 선덕왕이 행하여 정혜사라 했다.

3-3. 9C 신라목탑의 장엄

선종은 8C후부터 신라사회에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불사에 변화를 일으켜 지방에 산지가람의 조영에 영향을 주었다.³²⁾ 대표적인 예는 9C에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경주 함월산과 성주 송암산에 선승들의 승사리장엄을 위하여 건립했었던 승사리탑이다. 당시에 이름났던 선승은 기림사의 광유스님, 보문사의 현여스님, 성주사의 무염스님들이고 불사기록은 금석문에 전한다.

이 시기의 사리각은 선승들의 조상을 안치하거나 초상화를 보관하면서 승사리를 봉안하였던 불당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선종의 영향으로 신라하대(6C ~ 9C)에 생존하였던 고승들의 이소상십성(泥塑像十聖)을 흥륜사 금당에 조상으로써 장엄하였음이 증명해 준다.

(1) 기림사 목탑의 장엄

기림사(祇林寺)는 선덕왕 12년(643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기림사 목탑의 건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혜충(慧聰)이 지은 기림사의 중창기는 광유(光有) 성인이 경주의 동쪽에 있는 함월산에 임정사(林井寺)를 창건하였던 것을 그 뒤 원효는 절 이름을 기림사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임정사가 창건될 때 목탑이 함께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³³⁾ 둘째, 기림사의 사적기는 인도에서 건너온 승려로 알려진 정광여래의 승사리를 모시기 위해 3층 사리각이 세웠졌다고 전한다.³⁴⁾

위와 같이 기림사의 3층목탑은 선종사찰에 공적이 컸었던 선승(禪僧)의 승사리를 모셨는데, 현재 기림사 박물관은 금동제 사리함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사적기의 기록에 따라서 사리각의 건립시기가 다소 하강함이 인정되어 신라목탑 건립후기로 분류하였다.³⁵⁾

현장답사에서 약사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목탑지(3칸×3칸)는 초석들이 양호하게 남아 있고, 또한 넓은 토단 남쪽의 탑지에 남아있는 지표식 심

초석의 중앙에는 작은 사리공이 있지만 초석상면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찰주의 주좌가 없으며,[그림17 참조] 목탑기단의 유구도 없기 때문에, 이 목탑은 초층 바닥을 높게 했던 마루구조(간란식구조)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림17]. 기림사 3층사리각의 심초석

이 목탑은 장엄에 관련된 사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 사리장엄의 연구자는 사리각의 초층탑실 안은 선승의 조상 및 초상화 등을 안치하기 위한 불당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다.³⁶⁾

(2) 보문사 목탑의 장엄

보문사의 기록은 첫째, 경문왕 12년(872년)에 만들어진 「황룡사찰주본기」 제3판 외면의 도감전(道監典)에 「普門寺上座僧隱田, 當寺上座僧允如」라는 기록이 보인다. 둘째, 김유신을 위해 만든 석탑에 장엄되었던 「중화3년명 금동원통형사리함기」의 금석문은 헌강왕 8년(883년) 보문사의 현여(玄如) 대덕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조탑공덕에 의거하여 소탑 77기와 진언(경전) 77벌을 탑안에 봉안하고 중수하였다, 라고 기록이 보인다.³⁷⁾ 이 목탑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사리탑 신앙에 의하여 선승들의 공덕으로서 소탑이나 범사리를 봉안하고 신앙의 안치도 가능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³⁸⁾ 그 이유는 보문사 서 목탑지에 남아있는 3단 구조의 심초석이 신라목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장 답사에서 최상단의 덮개돌에 연꽃무늬를 조각한 주좌(지름75cm)가운데 원공(지름34cm, 깊이18cm)이 있음

32) 선종은 석가와 교설도 부정하며 형식을 거부하였고 반면에 개인의 마음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근본경전이 없었으며 스스로 수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근본이었다.

33) 혜충記, 「祇林寺重創記」 “梵摩羅國光有聖人自西以來住此山創一精藍名曰林井--”

34) 「사적기」 “有三層殿 卽定光如來 舍利閣也”

35) 경주시, 「기림사 대수광전-해체실측조사보고서-」 1997, 12, 43쪽, 44쪽, 45쪽

36) 신대현, 「한국의 사리 장엄」, 혜안, 2003, 11, 쪽244

37) 「한국고대금석문 III」, 「仲和三年銘 金銅舍利器記」 376쪽 ~377쪽

38) 장충식, 「신라시대 탑과사리장엄에 대하여」, 벽산학보 31, 1976

을 조사 실측하였다. 만약 여기에 당(幢)을 세우고 그 위에 놓은 연꽃대좌위에 석조관음상을 안치한 불단을 만들었다면 초층탑실의 내부를 장엄하여 불당을 갖춘 사리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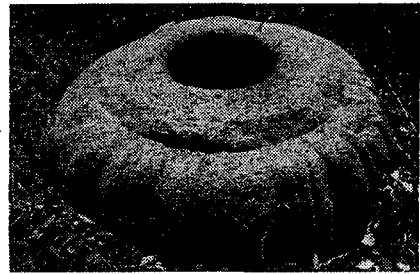
9C에 조성되었던 신라석불은 대부분 좌상으로 써 규모는 작으나 신라시대 이래의 고찰에 압도적으로 많이 현존하고 있음이 증명해 준다.³⁹⁾

특히 보문사 이름의 「普門」은 관음과 연꽃의 관계가 수록된 법화경의 보문품(普門品)에서 「普門」과 문자가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 경에서 석조관음상의 지물은 연꽃이므로 보문사 목탑의 심초석 덮개돌에 새겨진 연꽃무늬 [그림19 참조] 및 보문사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의 상단 외측에 조각된 8엽 연꽃무늬 [그림20 참조]는 당시에 장엄의 도상문양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므로 9C에 장엄은 다종다양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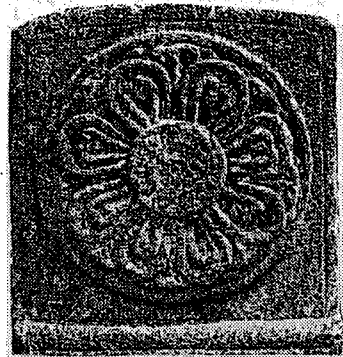


[그림18]. 9C 신라석불의 연꽃대좌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출전: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강우방, 1995, 313쪽)



[그림19]. 심초석 덮개돌의 연꽃무늬



[그림20]. 보문사 당간지주의 8엽 연꽃무늬

(출전: 한국의 석조미술, 진홍섭, 문예출판사, 1995, 512쪽)

(3) 성주사 목탑의 장엄

오합사(烏合寺)는 금당, 목탑, 회랑 등으로 구성되었던 백제 귀족의 원찰이었다. 이 사찰은 신라 말에 9산 선문 중에서 성주산문으로 새롭게 중창되어 문성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으면서 선종사원인 성주사로 바뀌었다.

성주사의 목탑은 첫째, 한국 금석문에 「樓閣七間」이라는 기록이 있다. 둘째, 송암산 성주사의 사적기에 「選法堂 五層重閣」이라는 기록이 있다. 후자의 기록처럼 5층중각(7칸×7칸)은 선법당이었으므로 문성왕 7년(845년)에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낭혜무염(무열왕 8세손)의 영향을 받아 선종사찰식으로 장엄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⁴⁰⁾

4. 신라목탑의 장엄특징

신라는 231개의 사원을 창건하였음이 알려졌고, 그 중에서 일부의 사원에 목탑이 건립되었다. 그

39) 9C에 제작된 신라석불은 동화사 비로암 석불상(863년), 축서사 석불상(867년), 부석사 자인당석상, 창림사석상, 불곡사석상, 비로사석상, 의성석상, 서혈사석상, 각연사석상, 청룡사석상, 선림원지석상 등 많은 예가 남아 있다.

40) 「송암산 성주사 사적기」 “改創選法堂五層重閣三千佛殿九間大雄寶殿五間”

이유는 목탑 건립은 경제적 비용과 많은 공역이 소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는 6C ~ 9C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목탑을 건립하였다. 즉 건립되었던 목탑은 당연히 어떤 목적이나 질서 및 조형방법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장엄조식자들의 사상과 감정이 어떤 형태로 든지 목탑에 담겨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엄이 이루어졌던 목탑은 국가의 큰 불교행사 때 의례공간의 장소로 제공되어 숭배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신라불교는 처음 전래되자 사리송배를 위하여 최초로 조탑을 위한 의궤(儀軌)가 필요하였지만 아직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궁궐건축물을 목탑의 용도로 바꾸어 채택되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 목탑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 첫째는 진신사리를 봉안해야 했고, 둘째는 장엄조식(莊嚴彫飾)을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 전자는 목탑가구의 চাল주방식과 직접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고 후자는 목탑의 성격과 관계된다.

본 논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신라목탑의 장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신라목탑의 장엄은 목탑유구의 부채뿐만 아니라 사료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도상화하기 보다는 신라 목탑의 장엄을 문자위주로 밝히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료를 발굴하여 축적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장엄사항이 도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신라목탑의 장엄원리는 경전에서 밝힐 수 있다. 즉, 경전은 오래된 기록물이므로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탑과 관련된 경전은 대표적으로 법화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조탑공덕경 등이 있으나 가장 적극적으로 건탑, 조상(造像), 회화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법화경의 제11 견보탑품(見寶塔品)에 보탑의 장엄에 관한 내용이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¹⁾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이 탑은 갖가지 보물로 엄식(嚴飾)하였는데, 난간이 5천이고 감실이 천만이며, 무수한 당기.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웠으며, 보배의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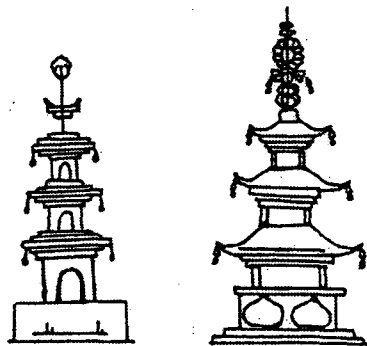
경 만역을 그 위에 달았다.....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칠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사천왕의 궁전에 까지 이르렀다. 33천은 하늘의 만다라 꽃을 비처럼 뿌려 보배탑에 공양하며.....이 보배 탑 안에는 여래의 전신이 계시니라.」⁴²⁾

위와 같이 보탑의 장엄은 칠보, 당기, 번기, 난간, 감실, 일산(상륜) 등으로 꾸미는 것으로써, 이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나타낸 실예는 불국사의 다보탑이다.

신라목탑은 6C ~ 9C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건립되었으나 장엄은 최초 목탑건립시에 이루어져서 목탑이 존재하는 동안에 불교 교리의 변천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은 당연하다.

한국은 석탑의 나라라고 하듯이 신라석탑은 목탑에서 변안되어 각 시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서 장엄부조되어 도처에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신라의 목탑과 석탑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기별로 같이 건립되면서 장엄도 역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을 것이다. 비록 목재의 단점 때문에 목탑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에 남아 있는 신라석탑은 당시의 시대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며 금석문도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착안하여 신라석탑의 장엄조식을 조사하여 목탑장엄의 일반적인 자료를 추출하여 객관화 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⁴³⁾

그밖에 신라 목탑지에서 출토된 여러 종류의 전들은 목탑의 장식을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양지스님이 제작한 탑전의 탑상이다. [그림21 참조]



[그림21]. 양지가 제작한 탑전들의 탑상(석장사지출토) (출전: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52쪽, 69쪽)

41) 법화경은 서기 1C초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은 전 7권 28장으로 된 구마라습이 한역하였으며 원래는 「묘법영화경」이었다.

42) 이민수, 「법화경」, 홍신문화사, 1987, 12, 228쪽 ~ 229쪽에서 인용하였다.

43)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1994, 5,

경주 남산에 있는 탑곡마애탑은 신라의 9층목탑과 7층목탑의 장엄을 밝히는 직접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즉 상륜과 풍탁은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6C에 건립한 분황사 모전석탑은 초층 감실의 좌·우에 인왕상을 부조하였는데, 8C 이후에 건립되었던 신라석탑들은 약 10부분(사천왕, 인왕, 팔부신중, 사방불, 보살, 12지 신상, 비천, 감실, 문비, 안상)이 석탑탑신에 조각되었다.

신라석탑은 목탑건립의 연유와 비슷하였으므로, 장엄을 위한 장인은 왕실의 부름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같은 기술수준을 표현하려는 문화의 전파성을 고려해 볼 때 목탑장엄은 석탑장엄의 모본이 되어 석탑에 부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석탑의 부조상은 반대로 신라목탑의 장엄을 규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라는 6C ~ 7C초까지 왕경에 흥륜사, 천주사, 영묘사 등의 국찰을 조영하였고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 시기는 제석신앙과 미륵신앙이 숭앙되었고 주로 왕실기복의 의식이 이루어졌었다. 이 신앙은 전자의 사찰에 건립되었던 목탑장엄의 근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적합한 존상은 초기에 소조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신라 고분발굴의 출토품을 참고하면 6C ~ 7C는 금동불상을 주조할 수 있는 제철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7C전반은 고탄소강의 정으로 만든 석불이 만들어졌고 사원이 많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목탑장엄의 재료는 흙에서 금속으로 다시 석재의 사용으로 변천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이론은 신라 수공업의 발달사 분야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선덕여왕 4년(635년)에 당에서 귀국한 명랑은 자기집을 회사하고 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소형 금동탑으로 추정)과 불상을 광채 나도록 장식하였다는 문헌기록은 금도금이 장엄재료로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7C중 ~ 8C 동안에 영토확장과 국력신장 및 호국불교의 융승 등이 이루어지자, 경주에 황룡사 9층목탑, 사천왕사 목탑, 망덕사 13층목탑 처럼 층수가 높은 목탑을 건립하였다.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에 백제의 공장 아버지를 초청한 것은 외래 장엄기술의 도입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은 사리장엄에 철저하였다.

이 시기에 쌍목탑의 출현은 종전에 사찰의 중요도가 탑에서 불상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쌍탑의 정확한 조형원리는 알 수 없으나 목탑장엄은 호국불교의 힘으로 왕실귀족과 일반백성들의 단결로써 새롭게 실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경덕왕대 8C에 남긴 「황룡사찰주본기」에 탑중수는 호국불교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 증명해 준다.

특별히 7C중반에 신라는 삼국통일 후 중앙집권 국가의 건설을 위한 당나라와 외교적인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밀려들어온 서역미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신라화하여 목탑장엄에 응용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경덕왕(742년 ~ 765년)의 중국식의 제도개혁이다.⁴⁴⁾

경덕왕의 사회개혁은 불사도 영향을 받아 불교 전성기를 맞이하여 불국사의 다보탑이 세워졌고, 석굴암 내부에 신장상이 장엄되었다. 또한 동왕 23년(764년)에 장육소상은 금칠하여 장엄을 하였다는 문헌기록은 당시 신라불사의 장엄수준을 보여준다.

신라중대에 결성된 성전은 불사의 영선을 담당하였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성전사원의 목탑장엄에 관여했을 것이다. 그 결과 조탑은 완전히 의궤화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목탑장엄은 신장사상에 의하여 신장들이 장엄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신라석탑의 기단 및 탑신에 조각했던 부조상들이 증명해 준다. 예를 들면 분황사 모전석탑의 인왕상(6C) 및 태화사의 부도의 12지 신상(7C)은 8C ~ 9C에 이르기까지 신라석탑에 부조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12지 신상이 석탑조식에 널리 퍼진 이유는 약사신앙 때문이었다.⁴⁵⁾

통일신라 말기(9C)는 신라의 귀족불교가 쇠퇴해졌고 지방호족의 세력이 강해지자 선종이 유행하여 산지가람이 조영되었으며, 더불어 선종의 사리장엄을 위한 사리탑장엄은 선종의례가 위주였을 것이다. 이것은 9C에 각 지방에 건립되었던 신라석탑의 장엄조식이 증명해 주며 대표적인 석탑은 다음과 같다. [표2 참조]

44) 경덕왕은 제도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관직명은 중국식으로 개정하였고 지방명칭도 한자식으로 고쳤다.

45) 12지신상은 대부분 탑기단부의 한 면에 3구씩 방위에 따라 배치되는데, 북쪽에는 자-축-인, 동쪽에는 묘-진-사, 남쪽에는 오-미-신, 서쪽에는 유-술-해가 일반적으로 배치된다.

[표2]. 9세기 신라석탑의 위치 및 장엄조식

시기	탑명	위치	부조상
9세기	진전사지 3층석탑	영양군	하층기단-비천상, 상층기단-8부중상, 초층옥신-사방불
9세기	화엄사 서5층석탑	구례군	하층기단-12지상, 상층기단-8부중상, 초층옥신-4천왕상
9세기	산청지학리 3층석탑	산청군	상층기단-팔부중상, 탑신부-보살상
9세기	영천신월동 3층석탑	영천군	상층기단-팔부중좌상, 초층옥신-문비
9세기	원원사지동, 서3층석탑	경주시	상층기단-12지상, 1층탑신-사천왕상
9세기	경주남산승요곡 3층석탑	경주시	초층옥신-사천왕상
9세기	의성관덕동 3층석탑	의성군	하층기단-비천상, 상층기단-보살상, 사천왕상
9세기	운문사 3층석탑	청도군	상층기단-8부중좌상
9세기	선림원지 3층석탑	양양군	상층기단-8부중상
9세기	도피안사 3층석탑	철원군	각면 안상, 8각볼좌형기단
9세기	실상사백장암 3층석탑	남원군	초층옥신남면-문비, 문비좌우-보살상,

앞에서 고찰한 신라목탑 10기의 장엄은 불교 예술이 조형적으로 불교 건축물에 표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장엄수법은 조각, 서법(書法), 편액, 회화, 채색, 단청, 벽화, 신상, 사리장엄, 불단, 난간, 전돌감장, 상륜 등이 다양하게 장엄되었고 상호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찰하고 구명한 신라목탑의 장엄추정을 조사 분석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3]. 신라시대 불교신앙과 목탑장엄 추정

시대	사찰	문헌기록 목탑명칭	추정장엄	승배신앙
진흥왕대	홍륜사	殿塔	미륵 소조상 석감(石龕), 예배석, 신장탱화, 채색, 벽화, 전돌, 편액	제석신앙 미륵신앙 사리신앙
진평왕대	천주사	木塔	미륵불, 벽화, 염주, 불단	제석신앙 미륵신앙 사리신앙
선덕여왕대	영묘사	殿塔 (삼국유사), 木造塔 (삼국사기), 浮圖 (매월당시집)	사천왕상 선덕여왕영정 계단, 전돌 삼천불, 불단	제석신앙 미륵신앙 사리신앙
	황룡사	九層木塔	9한상, 계단, 벽화, 채색, 99소탑, 불단, 편액	화엄신앙 사리신앙 호국불교 신앙
	태화사	木塔	12지 신상	사리신앙 12지신앙
문무왕대	사천왕사	四天王塔	인왕상, 사방불 사천왕전돌, 불단, 밀교벽화, 금도금	사천왕 신앙 밀교신앙 호국불교 신앙
신문왕대	망덕사	兩塔十三層	밀침식 구조 채색, 단청	황수사상 사리신앙 호국불교 신앙
선덕왕대	기림사	三層殿 (舍利閣)	마루 구조, 난간, 광유화상	선종신앙 승사리 신앙
경문왕대	보문사	大木塔	연화문, 현여화상, 3단사리석탑, 77소탑, 불단	관음신앙 사리신앙
문성왕대	성주사	五層重閣 (選法堂)	낭혜무염화상, 삼천불, 불단	선종신앙 승사리 신앙

5. 결론

인도의 불교문화는 교역로를 통해서 중국을 경유하여 경주까지 전래되어 신라목탑은 6C ~ 9C까지 장시간에 걸쳐 약 10여기가 건립되었었다. 신라목탑의 장엄을 구명하여 밝히는 것은 목탑의 실체를 구성하는 마감요소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신라목탑의 형태고증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라목탑의 건립시기를 삼분법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의 각 목탑장엄을 사료를 통하여 조사 고찰하였다.

신라의 목탑장엄은 건립될 때 최초로 행하여져서 사찰에 존재할 때까지 중수과정을 거치면서 불교 의례와 의식을 위하여 계속되었다는 가정 하에 고찰된 것이다. 그러나 신라목탑의 장엄고찰은 주로 문헌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를 향상시켜준 것은 신라석탑의 장엄조식과 조탑관련의 금석문이었다.

신라목탑에 관련된 문헌기록과 탑지가 밝혀진 연구대상은 모두 개별적으로 각각 목탑의 장엄을 밝혀서 삼분법에 의한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목탑장엄 중에서 사리장엄, 상륜장엄, 창호장식, 풍탁 매달기, 전돌장식 등의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한 각각 목탑의 나머지 장엄에 관한 고찰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C ~ 7C초(신라목탑 건립고대) 시기에 신라는 불교전래와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건립되었던 목탑은 당시의 궁궐건축물을 그대로 응용하여 사리장엄을 처음 시도하였다. 그래서 석감을 갖추었고, 왕경인들의 탑돌이를 위하여 난간시설과 배례석을 설치하였으며 국왕의 편액을 감장하였다. 국찰에서 목탑은 존재의 중요성이 컸던 만큼 벽화장엄, 영정봉안, 채색 등을 하였으며 목탑의 지붕은 제작한 기와를 사용하였다.

천주사 목탑은 내불당으로서 제석신을 모시는 제석도량률 위하여 소조신상, 불감, 벽화 등의 장엄이 있었고, 또한 영묘사는 삼천불의 장엄을 위하여 탑실 안에 감실이나 불단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의 출입문 좌.우에 부조하여 장엄한 인왕상은 당시 목탑장엄의 부조에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목탑의 건축학적인 마감공사는 삼국사기 옥사조의 제한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목탑 건축에 모두 활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탑의 장엄불사는 왕실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왕경인들의 공양과 보시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목탑장엄은 당연히 불교신앙에 의한 왕실기복이나 귀족들의 추복의 목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장엄기술자의 능력부족은 새로운 목탑장엄에 대한 욕망으로 작용하여서 꾸준히 범본을 찾아 실험적으로 재시도의 노력이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 목탑장엄의 대상은 흥륜사 목탑, 천주사 목탑, 영묘사 목탑들이었다.

둘째, 7C중 ~ 8C(신라목탑 건립중세)는 신라의 국력이 서해안까지 미쳐서 산동반도를 통하여 직접 중국대륙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귀족출신들의 유학생들은 당나라를 유학하였고 조국에 귀국하면서 도입되었던 불교미술은 목탑장엄에 충분히 응용되어 많은 불사에 이바지했었다, 예를 들면 슬거나 양지와 같이 장엄에 능통한 스님의 역할이 돋보였다. 이 때 도입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다라니신상은 목탑의 장엄에 영향을 주어 탑 안에 소탑과 경전의 봉안을 위하여 탑정에 높은 철제상륜을 설치했다.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였던 신라왕실은 호국불교를 통치이념화 하면서 왕실귀족들의 재정으로 고층 목탑들을 건립하여 장엄을 하였다. 특히 채전감(彩典監)에 의하여 벽화, 단청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목탑의 외부 탑신과 창호도 화려하였을 것이다.

신라중대에 조탑불사가 융성해지자 목탑의 영선은 성전(成典)에서 담당하였으며 그 결과 제련기술의 발달은 장엄구가 금속으로 제작되었는데 도금이 이루어 졌다. 특히 고강도 철제 공구의 발달은 목탑장엄의 수준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증명해 준다. 고강도 공구에 의한 석재조각술의 발달로 태화사지 부도의 12지 신상이나 사방불의 조각 및 방형, 8각형 심초석등의 제작은 철생산이나 제련기술이 발달된 결과인데 경주에서 발굴된 야철지가 증명해 준다.

신라최초의 사천왕사 쌍탑은 오채색의 채색, 만다라장엄, 사방불 안치, 불단제작, 사천왕전돌 쌓기 등으로 목탑의 가구보다 목탑장엄의 공사범위가 확대되었고 귀족들의 보시가 널리 행해졌었다. 위와 같은 장엄이 이루어졌던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 사천왕사 목탑, 망덕사 13층목탑 등이다.

셋째, 9C(신라목탑 건립근대)는 신라의 전제왕권이 점차 쇠락해지면서 선종의 유행과 지방호족들이 대두되어 그들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왕경에서 먼 지방의 산지가람에 사리각이 건립되었었다. 이 사리각은 초층탑실 안에 불사조영의 공이 컸던 선승을 기리기 위한 승사리탑이었으므로 선승의 영정, 조상, 99소탑, 불화, 단청, 편액, 등의 장엄은 선종의 의례에 준하여 문양의 도상화로써 다종다양해졌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문사 목탑의 초층탑실 안의 연화문 조각의 심초석과 성주사의 선법당의 삼천불 장엄이 보여 주듯이 9C 사리각의 장엄은 도상화된 문양장엄 등으로서 지방화 하였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9C 각 지역에 건립되었던 신라석탑의 신증상, 문비, 비천상의 부조가 증명해준다.

본 연구는 신라목탑 10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목탑의 장엄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신라목탑의 장엄방식들이 고증되었고 각 목탑의 장엄사상의 영향이 밝혀짐으로서, 여기서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던 각 목탑의 장엄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다양하게 목탑에 표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장엄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도형화하여 재구성한다면 다소 비약된 부분도 있으나 그 결과가 신라목탑의 실체를 밝히는 한 부분으로써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문운당, 1997. 8
2. 강우방, 「안압지보고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78
3. 강우방,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 부조상의 복원적 고찰- 오방신과 사천왕의 조형적 협습 현상-」, 미술자료 25, 1979. 12
4. 기림사대속광전, 해체실측조사보고서, 경주시, 1997. 12
5. 황수영, 「신라 황룡사 9층 목탑 칼주본기와 그 사리구」, 동양학3, 1973
6. 고고미술동인회편, 「승암산성주사사적」, 고고미술 9-9, 1968
7. 이강근,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한국고대 불전건축의 장엄조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1998
8.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연구, 학연문화사」, 1994. 5, 충북대학교
9.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한국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1998
10. 김정수, 「신라시대 목탑의 전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7호(통권 189), 2004
11. 김경표, 팔상전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8. 5.
12.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16, 1997. 12
13. 김도경, 주 남 철, 고려시대 환경변상도의 전각도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1권 4호, 1995. 4
14. 주남철, 목조탑과의 연구, 고고미술, 162-163호, 한국미술사학회, 1984. 9
15.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 1984
16. 김성구, 「옛 전돌」, 대원사, 1999. 8
17. 金時習, 「梅月堂詩 四遊錄, 登靈廟寺浮圖」
18. 천득염, 백제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0
19. 김상태, 사천왕사의 밀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2004

A Study on the Severe-Ornament of Wooden Pagodas in Silla Period

- Focused on the study of the literature -

Kim. Cheong-Soo
(Anyang Technical College)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vere-Ornament (Vyuhā :Sanskrit) of wooden pagodas in Shilla period in order to assume a detailed shape of wooden pagodas called the palace style, the multi-story style, the towered namsion style, that were built at the temples in Gyeongju during Shilla period.

The Severe-Ornament had been used traditionally by installing a Buddhist image, Guardians, Sarira and by printing a color.

The other hand, The roof tiles and tiles were annexed to the Severe-Ornament so a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wooden pagodas.

The Vyuhā had been used not only to install a highly valued Buddhist image in the wooden pagodas but also to represent an important part of ritual art of Silla period.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find out a variety of details of the wooden pagodas in Shilla period.

Keyword : Wooden Pagodas, Severe-Ornament, Sarira
